

August 2026
No. 407

INSS

전략보고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회담 비교 분석: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한반도 전략

박병광
bkpark@inss.re.kr

- I. 서론
- II. 2019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관계의 재정비
- III. 2026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 전략협력의 심화
- IV.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북중관계에 대한 비교
- V. 결론: 중국의 한반도 전략 진화와 정책적 함의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회담 비교 분석: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한반도 전략

I. 서론

II. 2019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관계의 재정비

1. 국제정세: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2. 방북 추진 배경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3.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III. 2026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 전략협력의 심화

1. 국제정세: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
2. 방북 추진 배경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3.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IV.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북중관계에 대한 비교

V. 결론: 중국의 한반도 전략 진화와 정책적 함의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회담 비교 분석: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한반도 전략

저자 | 박병광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9년과 2026년 두 차례 평양 방문을 비교하여 북중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국제정세,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전략, 정상외교 담론이라는 네 가지 분석 틀을 통해 두 정상회담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규명하였다. 2019년 방북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미·중 전략경쟁의 시작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의 핵심 목표는 경색된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반면 2026년 방북은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러 협력 심화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 중국은 한반도를 비핵화 문제를 넘어 전략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두 차례 정상외교를 비교하면 네 가지 변화가 확인된다. 첫째, 국제환경은 비핵화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로 전환되었다. 둘째, 북중관계는 관계 복원에서 장기적 전략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중국의 대북전략은 비핵화 협상 관리에서 전략환경 관리로 확대되었다. 넷째, 정상외교 담론도 혁명전통과 역사적 우의를 강조하던 방식에서 공동안보, 공동발전, 운명공동체 등 미래지향적 전략협력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은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능이 조정된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을 북핵 협상 관리에서 미·중 전략경쟁 속 지역질서와 전략환경 관리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북중 정상외교는 이러한 전략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외교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제어: 북중관계, 정상외교, 시진핑, 김정은, 전략협력, 반도 비핵화

I 서론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이후 정치·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 핵문제의 부상,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양국관계는 협력과 긴장을 반복해 왔지만, 북중 정상외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국 관계의 방향과 중국의 대북전략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해 왔다.¹

북중 정상외교는 양국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 채널이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정상회담은 외교·안보·경제·군사 분야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대내외에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정상외교는 ‘관계 이상설’이 제기될 때마다 전통적 우호와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나아가 북핵 문제, 미·중 전략경쟁, 동북아 질서 변화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지역전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 메커니즘이다.²

북중 정상외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 갖는 전략적 의미이다. 북한 지도자의 방북이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북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최고 수준에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양국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와 동북아 질서 인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2019년 6월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평양 방문은 후진타오 주석 이후 14년 만의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이었다. 당시 북중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누적된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방북은 북중 전통 우호를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정상외교로 평가된다.³

1 북중관계에서 정상외교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 김정일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9), pp. 4-7.

2 박병광, “시진핑 방북 가능성 및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26.5.27.), pp. 1-2.

3 이상근·박병광, “시진핑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19.6.23.); 박병광, “2019년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편, 『2019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20), pp. 335-341.

반면 2026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국제환경과 북중관계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보환경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자국의 주변안보와 전략경쟁이 교차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높였다. 이러한 점에서 2026년 방북은 관계 복원을 넘어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북중 전략협력을 공고화하고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상외교로 이해할 수 있다.⁴

두 차례 방북은 모두 북중관계를 재정비하고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양국 정상외교가 대응한 국제환경과 전략적 목표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2019년 방북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냉각된 북중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26년 방북은 미·중 전략경쟁과 지역질서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주변전략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능이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라는 공식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략적 관심은 비핵화 협상 관리에서 미·중 경쟁과 동북아 전략환경 관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두 차례 정상외교의 비교는 중국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이해하고, 향후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2019년과 2026년 시진핑 방북은 각각 어떠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중국의 전략적 고려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두 차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담론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대북전략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셋째, 두 차례 정상외교는 중국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며, 북한의 전략적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넷째,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전략에 제공하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4 김보미 외 4인, “북중 정상회담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26.6.10.).

본 연구는 북중 정상외교를 단순한 외교사적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읽어내는 분석 단위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국제환경, 양자관계, 전략, 담론이라는 네 가지 분석 차원을 연계하여 정상외교가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의 창(窓)’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동북아 전략질서와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2019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관계의 재정비

1. 국제정세: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정세의 변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국제질서는 미·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따라서 2019년 시진핑 방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정세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19년은 미·중 관계가 협력 중심에서 구조적 전략경쟁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한 통상 갈등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군사안보, 국제규범을 둘러싼 전면적인 전략경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으며,⁵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중국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인식하면서 주변외교의 안정과 전략적 완충공간 확보를 더욱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단순한 인접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지역 안보,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환경의 일부였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자국의 안보환경과 지역 전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정세 역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미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December 2017), p. 25;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DoD, January 2018), p. 2. 두 문서 모두 중국을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자 현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공식 규정했다.

직접 마주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⁶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19년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급격히 반전되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를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보다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였다. 결국 양측은 비핵화의 범위와 제재 완화의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⁷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북미 대화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 행위국들의 전략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자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요컨대 2019년 시진핑의 방북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북중 정상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방북 추진 배경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국빈방문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중관계를 재정비하고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다.

6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조건』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고유환, “판문점 선언과 비핵평화체제 이행 전략,”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pp. 13-22; 이호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2019년 봄), pp. 223-240.

7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조. 민정훈,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1호(2019), pp. 383-403; 최강·신범철,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년 3월 4일).

2019년 시진핑 방북을 추동한 주요 전략적 의도는 첫째, 북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통한 관계 정상화와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⁸ 김정은 집권 초기 북중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 등으로 상당 기간 경색되었다.⁹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중국 국가주석으로서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당시 북중관계의 냉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북중관계는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였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방중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¹⁰ 중국 역시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자국의 전략적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고위급 소통을 적극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는 시진핑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전략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¹¹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중국으로서는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시진핑의 방북은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중국을 배제한 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중국은 또한 북미협상의 성패 자체보다 협상 과정의 ‘안정적 관리자’ 역할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¹²

- 8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방북 목적은 북중 간 전통적 우의의 공고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新華通信』 2019년 6월 20일.
- 9 예를 들어 북한은 중국을 향해 “죽대 없는 나라”, “미국의 횡포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는 “일부 대국이 미국의 협박과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 2014년 7월 24일; 『노동신문』 2016년 4월 3일.
- 10 김정은 방중(1-4차)의 내용과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2018년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편, 『2018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9), pp. 299-343; 박병광, “2019년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편, 『2019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20), pp. 325-363.
- 11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 100.
- 12 중국의 북핵문제에 관한 ‘관리자’ 입장이라는 것은 첫째, 북핵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둘째, 6자회담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장(場)을 열어주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특수관계자로서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과도한 일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넷째, 전략물자의 제공 중단 등 북한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는 것은 중국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었고, 반대로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지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시진핑의 방북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와도 맞물려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지역 안보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국가였으며,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국의 주변외교와 국가안보 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결국 2019년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장기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상외교였다. 다시 말해, 당시 방북은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기보다는 변화한 전략환경에 대응하여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재정비하고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3.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국빈방문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외교였다. 이번 방문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시진핑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과 정상회담 공동 메시지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방북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19년 6월 19일 『노동신문』에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传承中朝友谊, 续写时代新篇章)」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발표하였다.¹³ 중국 최고지도자가 방북 직전 북한의 공식 기관지에 직접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의전행사가 아니라 북중관계의 회복과 양국 협력의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다.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 59.

13 『노동신문』 2019년 6월 19일.

기고문에서 시진핑은 북중관계를 ‘전통적 우의’, ‘혁명적 친선’, ‘피로 맺어진 우의’로 표현하며 양국 친선 관계의 역사성과 정치적 기반을 강조하였다.¹⁴ 이는 김정은 집권 초기 검색되었던 북중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新時代)’와 ‘새로운 장(新篇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자체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지지하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북미대화의 지속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의제가 논의되었다.¹⁵ 첫째, 북중관계의 정상화와 정치적 신뢰 회복이다. 시진핑은 중국 당과 정부가 북중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음을 강조하며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정은 역시 북중 친선을 선대 지도자들이 남긴 공동의 유산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은 북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정치적 신뢰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다. 김정은은 북미협상 교착의 원인을 미국의 상응조치 부족에서 찾았으며, 시진핑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과 비핵화·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경제·문화·교육·지방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북중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넷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이다. 양국 정상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 간 교류와 당 대당 협력, 외교·안보 분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고위급 전략소통을 강화하고 북중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14 시진핑의 노동신문 특별기고문에서는 ‘중조친선’이라는 용어가 11차례 등장한다.

15 『人民日報』 2019년 6월 21일; 『노동신문』 2019년 6월 21일.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확인된다. 시진핑은 북중관계의 역사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¹⁶ 김정은은 북중 친선의 지속과 중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미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든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관한 특별한 사의나 언급은 없었다.¹⁷

2019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당시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였고, 북한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재정립하였다. 다만 당시의 정상회담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협상 동력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2019년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표 2-1〉 2019년 시진핑 방북 당시 시진핑·김정은 주요 발언

의제	시진핑 주요 발언(요지)	김정은 주요 발언(요지)	의미 및 평가
북중관계	“중조 전통친선은 양국 공동의 소중한 재산이며 시대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방북은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다”	양측 모두 북중관계의 복원과 정상화를 이반 방북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규정
전통적 우호	“전통적인 중조 우의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의 장을 함께 열어가자”	“조중친선은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혁명전통과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확인
북한체제 발전	“중국은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	“중국당과 정부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북한은 이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뜻을 표명
한반도 비핵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한다”	“조선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공동 인식을 확인

16 『人民日報』 2019년 6월 21일.

17 실제로 김정은은 시진핑이 다녀가고 불과 열흘도 안 되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사실상의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의제	시진핑 주요 발언(요지)	김정은 주요 발언(요지)	의미 및 평가
북미 협상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정당한 관심사는 응당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북중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지 공감
전략적 소통	“국제 및 지역 정세 변화 속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	“중국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양국 정상 간 정례적 소통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작용
국제정세 인식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중조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사회주의 위업을 함께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와 대외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중 전략협력의 국제적 의미를 부각
방북의 역사적 의미	“이번 방문은 새로운 시대 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방문은 조종천 선 역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양국 모두 시진핑 방북을 단순한 의전행사가 아니라 북중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

III 2026년 시진핑 방북과 북중 전략협력의 심화

1. 국제정세: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

202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2019년과는 다른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중 전략경쟁은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구조적 경쟁으로 자리 잡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이 한반도와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전략적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전략경쟁이 일시적 갈등을 넘어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¹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인공지능과 반도체 경쟁, 군사억제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군 현대화, 주변외교 강화를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미·중 경쟁은 단기적인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¹⁹

국제정세 변화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였다. 전쟁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국제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이라는 신냉전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4년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사기술 협력과 방산 협력, 경제교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²⁰

18 吴心伯, “塑造中美战略竞争的新常态,” 『国际问题研究』 2022年 第2期, pp. 37-50; Xuetong Yan-Haixia Qi, “China-US Competition, Reverse Globalization, and the Regression of World Politic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July 2025), pp. 1-15; Zheng Wang, “The G-2 Reality: America and China Cannot Dominate or Exclude Each Other,” *Foreign Affairs*, (May 26, 2026),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g-2-reality?check_logged_in=1

19 Edited by Kevin G. Cai, *The US-China Rivalry: Domestic Dynamics,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2026).

20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4.7.31.); 김영환·박민형,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통일정책연구』 제33권 제2호(2024), pp. 171-195 참조.

북러관계의 심화는 중국에도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기하였다. 중국은 북러 협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북중관계의 상대적 비중이 변화할 가능성에는 주목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활용하는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¹

동북아 안보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러 전략적 공조도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연합훈련과 미사일 정보 정보공유,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두 협력축이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고,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과 역내 안보구도가 교차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새로운 고려요인을 제시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북러관계의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안정과 북중관계의 지속적 관리가 국가 안보와 주변외교에서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다. 특히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중국의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²²

요컨대 2026년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 동북아 안보환경의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북중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방북 추진 배경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

202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2019년 첫 방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중국의 정책적 고려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2019년 방북이 검색되었던 북중관계를 회복하고 전략적 신뢰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6년 방북은 변화한 국

21 "Russia and North Korea's Defense Pact Is a New Headache for China," *New York Times*, June 20, 2024.

22 Amy Hawkins and Helen Davidson, "North Korea's involvement in Ukraine draws China into a delicate balancing act," *The Guardian*, (November 6,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nov/06/north-korea-troops-russia-ukraine-war-china-relationship>

제질서 속에서 복원된 북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북러 협력의 심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첫째, 이번 방북은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경쟁을 정치·경제·기술·군사 전반에 걸친 장기적 경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외교·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주변안보와 동북아 세력균형에 직결되는 핵심 전략공간으로 인식되었고, 북한은 중국의 주변외교를 추진하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변외교(周边外交)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²³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선린우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지역질서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북한 역시 전통적 우호국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중국의 주변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진핑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히 심화된 북러 협력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고려요인을 제시하였다.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경제 협력을 크게 확대하였고, 이는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북러 협력이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가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 역시 면밀하게 주시하였다.²⁴ 중국은 북러 협력을 견제하기보다 변화한 전략환경 속에서도 북중관계의 안정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외교 공간이 확대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북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23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발전 과정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May 2022); 김홍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아시아브리프』 1권 26호 (2021), pp.

24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조약’ 비준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두 개의 독립 주권 국가이며,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그들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2024년11월12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12/t20241217_11495502.shtml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현실적 조정을 거치고 있었다. 2019년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2026년에는 북미대화의 장기 교착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위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²⁵ 중국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협상 촉진 자체보다 지역 안정과 전략환경 관리에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기보다 변화한 국제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 속에서 중국이 추구한 핵심 목표는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중국은 2019년 이후 회복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교류와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보건·과학기술·교육·접경지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북중관계를 특정 현안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방북에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이념인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을 주변외교에 구현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다.²⁶ 중국은 이를 안보와 경제, 공급망,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은 이러한 주변외교 구상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번 방북은 북중관계를 이러한 외교철학과 연계하여 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었다.

결국 2026년 시진핑의 두 번째 평양 방문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러 협력의 심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외교였다. 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복원된 북중관계를 변화한 전략환경에 맞게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안정적인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26년 방북은 2019년의 성과를 토대로 북중 협력을 한층 심화·발전시키려는 연속선상의 정상외교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25 일례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므로 한반도까지 전쟁이나 동란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王毅：半岛不应生战生乱，开冷战倒车要承担历史责任.”(2024年 3月 7日).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gjldrh_674881/202403/t20240307_11254951.shtml

26 시진핑은 방북 전 노동신문 특별기고문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전통적인 우의는 양측 관계의 뿌리 깊은 기초다. 손을 맞잡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신문』 2026년 6월 8일.

3.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26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평양 국빈 방문에서도 북한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시진핑을 맞이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순안국제공항에서 직접 영접하였고, 대규모 환영 행사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연회, 문화공연, 조중우의탑 참배, 노동당 간부학교 방문, 환송오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조중우의탑 헌화는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공동의 역사적 기억과 전통적 우호를 재확인함으로써 북중관계의 역사성과 정치적 상징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평양 도착에 앞서 『노동신문』에 특별기고문을 발표하였다.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 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继往开来、砥砺前行，续写中朝传统友谊崭新篇章)」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이번 정상회담의 정책적 방향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었다.²⁷ 시진핑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새로운 발전 기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제시하며 전통적 우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변화한 국제환경 속에서 북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²⁸

〈표 3-1〉 2019년과 2026년 시진핑 노동신문 특별기고문 비교

비교 항목	2019년 기고문	2026년 기고문	전략적 의미
핵심 담론	전통적 우의, 혁명전통	운명공동체, 전략적 협력	역사 중심에서 미래 중심으로 전환
정책 초점	비핵화, 평화, 대화	주권, 안보, 공동 대응	협상 관리에서 전략적 연대로 발전
중국의 역할	중재자, 촉진자	전략적 동반자	한반도 문제에서 지역질서 관리자로 확대
국제질서 인식	평화협력 중심	패권주의 대응, 전략경쟁 인식	미중 경쟁 심화 반영
북중관계의 성격	관계 복원	전략적 제도화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2019년 기고문이 전통적 우의와 혁명적 친선을 강조하며 북중관계의 복원을 부각하였다면, 2026년에는 공동의 발전과 안보, 운명공동체, 전략적 협력 등 미래지향적 요소의 비중이 한층 커졌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변화한 국제환경 속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노동신문』 2026년 6월 8일.

28 시진핑의 노동신문 기고문 중국어 원문(전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中國外交部, “习近平在朝鲜媒体发表署名文章: 继往开来、砥砺前行 续写中朝传统友谊崭新篇章” (2026년 6월 8일).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zyjh_674906/202606/t20260608_11939137.shtml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양국은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최고지도자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신뢰 강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실질협력 확대 △전통 우호를 계승하기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전략적 협력의 내실 강화를 제안하였다.²⁹ 김정은 역시 북중 친선이 국제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자산임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양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최고지도자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의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발전노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⁰ 이는 북중관계가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경제와 사회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국경 교류의 정상화와 접경지역 협력, 물류망 복원,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건·농업·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현실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 정상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확인된다. 김정은은 북중 친선이 세대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이 북한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³¹ 또한 중국의 국가주권과 발전이익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

29 『新華通信』 2026년 6월 8일; “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https://cn.chinadiplomacy.org.cn/2026-06/08/content_118537837.shtml

30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 2026년 6월 9일.

31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국가 간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2026년 6월 9일.

타냈다. 시진핑 역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전략적 신뢰를 심화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북중관계를 중국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규정하였다.³²

2019년과 2026년 정상회담을 비교하면 북중관계의 연속성과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 전통적 우호와 정치적 신뢰를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2019년이 냉각되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6년은 복원된 관계를 변화한 국제환경에 맞게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

한편, 2026년 시진핑 방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개 석상에서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³³ 시진핑의 방북전 『노동신문』 기고문과 중국외교부가 제시한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양국의 발전 전략 결합,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 강화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³⁴ 오히려 북미대화의 장기 교착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보다 현실적인 위기관리와 지역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2026년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라기보다, 2019년 이후 회복된 정치적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상외교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북러 협력의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의 안보 및 발전이익을 강조함으로써 북중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2 『新華通信』 2026년 6월 8일; “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https://cn.chinadiplomacy.org.cn/2026-06/08/content_118537837.shtml

33 이호령, “2026년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비핵화’의 증발과 북중관계의 구조적 전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포커스 (2026.6.25.), pp. 3-4.

34 시진핑 방북을 하루 앞두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2026년6월8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606/t20260608_11939733.shtml

〈표 3-2〉 2026년 시진핑 방북 당시 시진핑·김정은 주요 발언

의제	시진핑 주요 발언(요지)	김정은 주요 발언(요지)	의미 및 평가
북중관계	“새로운 시대 중조 운명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자”	“조중친선은 어떤 국제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전략적 관계이다”	2019년의 ‘관계복원’에서 나아가 북중관계를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
관계의 성격	“전통적인 우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	“조중관계는 양국의 핵심이익을 함께 수호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북중관계의 정당성이 역사적 혈맹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으로 확대
북한발전 지원	“중국은 조선이 국가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	북한 체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재확인
한반도 정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조중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비핵화보다 ‘평화와 안정’ 및 ‘전략적 관리’가 핵심 의제로 부상
주권과 안보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주권, 안보이익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조선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확고히 지지하며 공동의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상호 핵심이익 존중’이 북중 협력의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 잡음
국제정세 인식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자”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조중 전략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을 염두에 둔 공동 대응 의지를 시사
전략적 협력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경제와 과학기술, 국경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	정치적 신뢰를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
방북의 역사적 의미	“이번 방문은 새로운 시대 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총서기 동지의 방문은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이다”	2026년 방북을 북중관계의 ‘전략적 제도화’를 상징하는 전환점으로 평가

IV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과 북중관계에 대한 비교

2019년과 2026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두 차례 평양 방문은 모두 북중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그 의미와 전략적 함의는 동일하지 않았다. 2019년 방북이 장기간 경색되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6년 방북은 복원된 관계를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두 정상외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외교행사의 형식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대북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이 보여주는 북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국제질서, 양자관계, 대북전략, 정상외교 담론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국제정세는 ‘비핵화 국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2019년 시진핑의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아직 외교적 동력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와는 별개의 지역 안보 현안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전략 과제였지만, 당시에는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다. 중국은 북미대화의 지속을 지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필수적인 중재자이자 이해당사자임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2026년의 국제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미중 전략경쟁은 경제와 첨단기술을 넘어 군사·안보·가치체제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대만해협 긴장 등 복합적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국제질서는 진영화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은 더 이상 단순한 비핵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결국 두 차례 정상외교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이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협상 중심’에서 ‘전략경쟁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북중관계는 ‘관계 복원’에서 ‘전략적 공고화’ 단계로 발전하였다. 2019년 정상외교의 핵심 과제는 냉각되었던 북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양국 간 소통의 단절로 약화되었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당시 외교의 중심 과제였다. 따라서 정상외교의 의미 역시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상호 신뢰를 재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2026년 정상외교가 출발한 지점은 이미 관계가 복원된 이후였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목적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복원된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적 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즉 양국은 기존의 정치적 친선관계를 넘어 외교·안보·경제·국제무대 협력을 포괄하는 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심화시켰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양국 협력이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체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관계 개선을 넘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장기 협력관계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상외교 역시 이러한 관계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³⁵

셋째, 중국의 대북전략은 ‘비핵화 관리’에서 ‘전략환경 관리’로 확대되었다. 2019년 중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논의가 병행되던 당시 중국은 협상 재개를 지원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협상 당사자였다.

그러나 2026년 중국이 직면한 전략환경은 더 이상 북핵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한반도 현안 자체보다 미국의 대중 전략 압박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전략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되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북한이 관리해야 할 안보 리스 크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전략환경 안정화’로 이동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또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대북정책이 단기적인 현안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질서 관리 전략 속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 시진핑 방북 이후 북한은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박태성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7년 만에 파견했으며(7.10), 중국도 답방 형식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했다(7.15).

넷째, 정상외교 담론은 ‘역사적 정당성’에서 ‘전략 협력’과 ‘미래 공동이익’ 중심으로 진화하였다. 2019년 정상외교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로 전통적 우호와 혁명적 친선이라는 역사적 서사에 기반하고 있었다. 양국은 항일혁명과 사회주의 연대의 역사, 혈맹의 상징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관계 복원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과거의 공동 경험을 현재의 협력 기반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2026년 정상외교에서는 역사적 유대가 여전히 중요한 상징으로 유지되면서도 담론의 무게중심은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이동하였다. 공동 발전, 공동 안보, 공동 번영,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미래의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한 담론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북중관계의 정당성이 과거의 역사적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적 필요성과 공동의 이익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북중 정상외교가 단순히 전통적 우호를 재확인하는 상징외교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전략목표를 조율하는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2019년과 2026년 시진핑의 두 차례 평양 방문은 동일한 외교행사의 반복이 아니라 북중 정상외교의 질적 진화를 보여주는 연속된 과정이었다. 2019년 방북이 관계의 복원과 외교적 재출발을 의미하였다면, 2026년 방북은 복원된 관계를 전략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하고 장기적 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었다. 다시 말해 북중 정상외교는 비핵화 국면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전략적 연대를 조율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표 4-1〉 2019년과 2026년 시진핑 방북 비교

구분	2019년 방북	2026년 방북
국제환경	하노이 회담 직후	미중 전략경쟁 심화
핵심 목표	북중관계 복원	북중관계 공고화
중국의 역할	북미협상 중재	전략적 연대 구축
북한의 위상	협상 당사자	전략적 파트너
핵심 의제	비핵화·평화	안보·주권·공동발전
노동신문 기고문	전통적 우의	운명공동체
전략 키워드	관계 회복	전략협력 심화
중국의 한반도 전략	협상 관리	전략환경 관리

V 결론: 중국의 한반도 전략 진화와 정책적 함의

이 보고서는 국제환경,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전략, 정상외교 담론이라는 네 가지 분석 축을 통해 2019년과 2026년 시진핑 방북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기본 원칙의 단절적 변화보다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책 기능의 조정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전략적 맥락과 정책적 무게중심은 변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비핵화 협상을 관리하는 전략'에서 '전략환경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정상외교가 북미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안정적 관리라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2026년 정상외교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지역 안보질서 변화, 주변국 관계 관리가 보다 중요한 전략적 고려 요소로 부상하였다. 특히 2026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가 공식 담론의 중심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의 정책 관심이 한반도 현안 자체에서 변화하는 전략환경 관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동시에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위상의 변화와도 직결된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을 위한 완충지대이자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 전략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협력국이자 주변외교를 실현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함께 수행하는 '전략적 협력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³⁶

이 과정에서 북중관계의 성격도 변화하였다. 2019년의 핵심 과제가 정치적 신뢰 회복과 관계 복원이었다면, 2026년에는 이미 복원된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협력 체제로 공고화하는 것이 중심 과제가 되었다. 노동신문 특별기고문에서 '전통적 우의'보다 '운명공동체'와 '공동의 안보·발전이익'이 강조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북중관계가 과거의 역사적 연대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6 물론 북중관계는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기보다 중국과 북한의 상이한 역량과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비대칭적 전략협력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중국의 대북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환경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독립된 외교 현안으로 보기보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 문제, 북러 협력 등과 연결된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자체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으로 북중관계가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략질서의 핵심 변수로 기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북러관계의 발전도 중국의 대북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는 협력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외교에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북중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에서 북중러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북중관계가 여전히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대북정책을 더 이상 북핵 문제만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미중 전략경쟁과 주변외교, 지역안보를 포괄하는 국가대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할 때도 북핵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전체 대외전략 속에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북중관계를 단순한 '혈맹'이나 '전통적 우호관계'라는 고정된 이미지로 이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북중관계는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협력의 내용과 방식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과거의 역사적 틀에만 가두어 해석할 경우 중국의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기 어렵다.

셋째,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외교적 전략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반드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위기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의 행동’만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정책 변화는 정상회담 결과나 발표문보다 노동신문 특별기고문과 같은 정책 담론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 지도부의 연설, 당 문건, 외교 담론, 주요 기고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정책 담론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략 변화를 보다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과 2026년 시진핑의 두 차례 방북은 단순히 두 번의 정상외교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2019년은 ‘북중관계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2026년은 ‘복원된 관계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공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즉 ‘관계의 정상화’에서 ‘협력의 심화와 공고화’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유환. “판문점 선언과 비핵평화체제 이행 전략,”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8.
- 김보미 외 4인. “북중 정상회담의 합의와 한반도 정세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26.6.10.).
- 김영환·박민형.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통일정책연구』 제33권 제2호(2024).
- 김흥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아시아브리프』 1권 26호(2021).
- 민정훈.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1호(2019).
-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9.
- 박병광. “2018년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편, 『2018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19.
- 박병광. “2019년 북중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편, 『2018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2020.
-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박병광. “시진핑 시기 ‘주변외교’의 발전 과정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May 2022.
- 박병광. “시진핑 방북 가능성 및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2026.5.27.).
- 이상근·박병광. “시진핑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19.6.23.)
-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와 실현조건』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이호령. “2026년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비핵화’의 증발과 북중관계의 구조적 전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포커스(2026.6.25.).
- 이호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2019년 봄).
-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24.7.31.).
- 최강·신범철.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9년 3월 4일).
- Kevin G. Cai (ed.). The US-China Rivalry: Domestic Dynamics,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2026.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December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DoD, January 2018.

Xuetong Yan·Haixia Qi, “China-US Competition, Reverse Globalization, and the Regression of World Politic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July 2025).

Zheng Wang, “The G-2 Reality: America and China Cannot Dominate or Exclude Each Other,” Foreign Affairs, (May 26, 2026).

吴心伯. “塑造中美战略竞争的新常态,” 『国际问题研究』 2022年 第2期.

“王毅：半岛不应生战生乱，开冷战倒车要承担历史责任,”(2024年 3月 7日).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gjldrhd_674881/202403/t20240307_11254951.shtml (2024.3.7.).

“2024年11月12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412/t20241217_11495502.shtml (2024.11.12.).

“习近平在朝鲜媒体发表署名文章：继往开来、砥砺前行 续写中朝传统友谊崭新篇章” (2026年 6月 8日).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zyjh_674906/202606/t20260608_11939137.shtml (2026.6.8.).

“2026年6月8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mfa.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202606/t20260608_11939733.shtml (2026.6.8.).

New York Times. June 20, 2024.

The Guardian. November 6, 2024.

『노동신문』 2014년 7월 24일.

『노동신문』 2016년 4월 3일.

『노동신문』 2019년 6월 19일.

『노동신문』 2019년 6월 21일.

『노동신문』 2026년 6월 8일.

『노동신문』 2026년 6월 9일.

『人民日報』 2019年 6月 21日.

『新華通信』 2019年 6月 20日.

『新華通信』 2026年 6月 8日.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Xi Jinping's 2019 and 2026 Pyongyang Visits

PARK, Byung-Kwa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compare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two state visits to Pyongyang in 2019 and 2026 to examine the evolution of China-North Korea summit diplomac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t analyzes the continuity and changes between the two summits through four analytical dimension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hina-North Korea relations, China'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the discourse of summit diplomacy.

Xi Jinping's 2019 visit took place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the Hanoi U.S.-North Korea Summit and at the outset of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t that time, China's primary objectives were to restore strained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d reestablish its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The summit emphasized the restoration of traditional friendship and political trust, the promo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and the resolution of issu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By contrast, Xi's 2026 visit occurred in a markedly different strategic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S.-China strategic rivalry, the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the deepening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China increasingly viewed the Korean Peninsula not merely as a denuclearization issue but as a critical arena of strategic competition. Accordingly, Beijing placed greater emphasis on consolidat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Pyongyang and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The summit highlighted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utual support for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expanded collaboration i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s, while denuclearization became less prominent in the public discourse. A comparison of the two summits reveals four major developments. First, the strategic environment shifted from an era centered on denuclearization to one defined b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evolved from relationship restoration to long-term strategic consolidation. Third,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panded from manag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to managing the broader strategic environment. Fourth, the discourse of summit diplomacy moved beyond historical legitimacy and revolutionary friendship toward future-oriented strategic cooperation based on shared security, common development, and the vision of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conclusion, Xi Jinping's two visits to Pyongyang demonstrate not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but rather an adjustment in its strategic priorities and policy functions in response to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le China continues to uphold its longstanding principles of peace, stability,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enter of gravity of its policy has shifted from manag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o managing the regional strategic environment amid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is context, China-North Korea summit diplomacy has emerged as a key diplomatic mechanism through which China's evolving strategic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is most clearly articulated.

Keywords: China-North Korea Relations, Summit Diplomacy, Xi Jinping's Visits to Pyongyang, China's North Korea Policy, Strategic Cooperation, Denuclearizatio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August 2026
No. 407